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참사’ 증거 인멸 지시했다”

해체공사 감리 선정·비상주감리 결정에도 깊이 개입 경찰, 문흥식 해외 도피 제보 목살로 ‘골든타임’ 놓쳐

이형석 의원 경찰청 국감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났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이 비상주감리 계약에 개입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또 경찰이 철거 공정·정비기반 사업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빚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해외 도피 정황을 사전에 제보를 받았으나 목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형

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경찰이 뒷북 수사로 학동 참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에서 감리자인 차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인 노모씨가 학동 재개발 4구역 해체 공사 감리 업체가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감리인인 자신과의 통화에서 감리 비용 산출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차씨는 감리자로 선정됐고 이후 재개발조합과의 계약은 올해 1월 20일 이뤄졌으며, 노모씨가 직접 전화를 해와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해 차씨는 1억 5000여만원을 제시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노씨는 감리 비용을 깎아 5000만원 이하로 작성된 계약서를 들고 와 조합을 대신해 차씨와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감리 계약 권한이 없던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주감리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차씨는 노부장과 사고 당일 밤 12시 무렵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만났고 노부장의 제안에 따라 사고 전 날 철거과정의 감리일지를 7장 정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측은 “현대산업개발 간부의 감리 선정개입은 조합 측의 업무와 행정사무를 도와준 차원이었고, 증거인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의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학동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김도 팀장이 문흥식씨 해외 도피 정황을 제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목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가 문씨의 해외 도피 이틀 전인 지난 6월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광주경찰청 수사팀장에게 “문씨와 또 다른 브로커 이모 씨가 중국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팀장은 문씨 해외 도피 제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문씨는 지난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해 90여일만인 지난달 11일 자진 입국해 구속 송치됐다.

문씨 해외 도피 우려를 제보받았다고 목살했다는 김 팀장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담당 팀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실사 사전에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됐더라도 당시에는 문씨에 대해서 의혹 외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이 불가능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학동 참사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상황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팀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랜선축제 5일 오전 신안군 중도면 병풍도가 맨드라미꽃과 파란하늘, 붉은 색의 지붕이 어우러져 동화 속 마을을 연상케하고 있다. 병풍도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는 10일까지 열린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나주·보성·화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저'

나주시와 보성군·화순군이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해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나주·보성·화순 등의 전남 지자체 3곳, 경기(고양·부천·이천·하남)와 충남(논산·서천·아산·태안)에서

각 4곳, 대구 2곳(달서구·중구), 서울(강서구·전북(익산)·경남(창원)에서 각각 1곳 등 이었다. 이곳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화순은 지난 2018년 80.71점에서 1년뒤 75.40점의 총점으로 -6.58의 지수개선율을 기록해 전남에서 가장 저조했다. 이어 보성은 -5.19(78.25점→74.19점), 나주 -3.69(78.03→75.15)의 지수개선율을 기록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해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학생-소상공인 공동 결식아동 리빙랩 프로젝트

전남대가 학생 창업팀, 지역 소상공인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들에게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미술교육을 시행하는 '학생주도형 산학협력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남대 LINC+사업단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인근 4개 소상공인들이 함께 도시락을 개발하고, 학생창업팀이 미술치료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꿈꾸는 공작소'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예향정 전대정 ▲꼬꼬닭사브 ▲설하원 ▲고르게삼촌 등 4개 소상공인과 학생창업팀 '뉴밍'에 이유미 학생(생활복지학과) 등 모두 7명이 참여한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항일운동 중심지 '흥학관' 기록으로 부활

1921년 구시청 사거리에 교실 등 건립...10일까지 전시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의했던 공간인 흥학관이 기록으로 복원됐다.

지난 1921년 건립된 '흥학관'은 항일운동, 시민사회운동의 중심이었다. 지금의 구시청 사거리 인근 800평 부지에 단층 목조건물로 지어졌으며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해 교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흥학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광주정신의 원형'인 흥학관을 기념하는 전시가 개최된다. 광주 동구는 오는 10일까지 전일빌딩245(광주일보 옛 사옥) 3층 시민갤러리에서 '흥학관, 광주사람들'전을 연다.

흥학관은 당시 지역 유지였던 최명구 선생이 본인의 회갑잔치를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 수양 공간으로 건립, 지역에 기부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문화활동이 펼쳐졌으며 1929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모의됐다. 이밖에 야학을 비롯해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이 전개됐으며, 정구와 권투를 보급하는 체육시설로도 활용됐다.

그러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흥학관은 사라지고 말았다. 1960년대 광주시청이 광산동에서 계림동으로 이전하면서 철거됐다.

이번 전시는 100돌을 맞는 흥학관 의미를 되



새기고 이곳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발자취를 모티브로 광주정신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기획됐다. 총괄감독은 '다시보는 임진왜란' 등을 쓴 양성현 작가가 맡았다. 양 작가의 책 '흥학관-광주사람들'이 모티브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명구의 후손인 최기성 씨가 직접 전시 안내를 맡아 관람객을 맞이해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흥학관의 의미와 1920년대 우리나라 주요 이슈가 됐던 불산장려운동, 노동운동 등 흥학관과 연계된 역사를 다각도로 다룬다. 또한 최명구와 최상현, 최정엽 '3부자'를 비롯해 최석수, 최홍중, 최원순, 서정희, 강석봉, 김용환, 지용수, 김필래 등 흥학관 설립과 이곳을 무대로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을 전개했던 인물 34명에 대한 자료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